

녹색은 물결

통권 280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 2023



2023 계묘년 **새해**

자연과 공존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녹색에 길에 지구 그리고 회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환경운동연합**



당진 석면학교 26곳..2026년까지 순차적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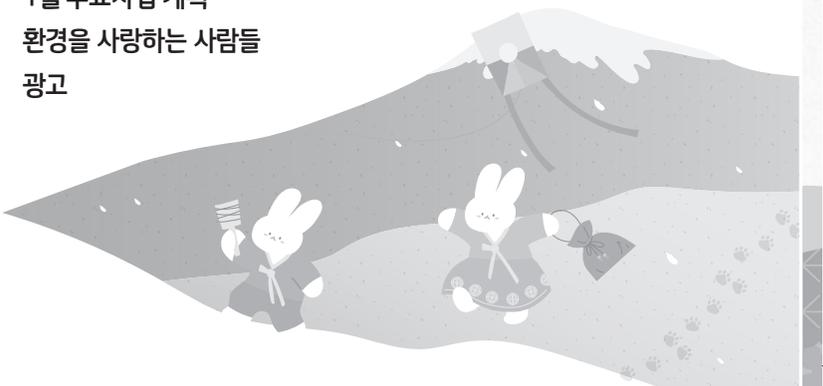
“석탄화력 조기 폐쇄” 당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기후위기 시대, 담대한 전환 필요하다”

- ▶ 발행 일 2023. 1. 10.
- ▶ 발행 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 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새해인사
-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화력 주변 주민 암 발생률 16% 높다”
- 6 지역환경초점2
| 당진 석면학교 26곳..2026년까지 순차적 제거
- 8 지역환경초점3
| “석탄화력 조기 폐쇄” 당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 9 지역환경초점4
| “기후위기 시대, 담대한 전환 필요하다”
- 10 지역환경단신1
| 충남도민 500여명 '김태흠 도정 비판' 집회
- 11 지역환경단신2
| 4500억 들여 수소 부두 조성
- 12 지역환경단신3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한다.
- 13 지역환경단신4
| “화학사고 발생 대비 구체적 시나리오 만들어야”
- 14 전국환경초점1
| 환경운동연합, 제1차 자원순환 포럼 통영서 개최
- 16 전국환경초점2
| 핵발전소 폐쇄 100만 서명 추진
- 17 전국환경초점3
| 탄핵위 “재생에너지 확대 검토해야”...
- 18 전국환경초점4
| 한전이 '30조원 적자' 내는 진짜 이유
- 19 12월 살림살이
- 20 12월 활동소식
- 22 1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우리가 걷는 걸음은 길이 됩니다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입니다.

선한 성품과 감수성과 유모가 뛰어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거뜰히 뛰어넘는 토끼의 운을 빌어 올 한해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해 봅니다.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 우리의 첫 마음을 다져봅니다

당진지역의 환경문제를 제기하며 창립된 우리입니다. 중부권 특정폐기물 매립장, 석문공단 유공 입주 반대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역에 기반한 환경 운동으로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 등 아름답고 복 받은 당진의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봄이면 당진 천변에 연분홍 벚꽃길이 펼쳐집니다.

당진 초입부터 순성면까지 쪽 펼쳐진 아름다운 벚꽃길은 당진 시민들의 봄날을 따뜻하게 만드는 쉼터이며 이야기 길입니다. 우리 환경연합이 심은 꽃길입니다. 그 묘목을 심었던 고사리손들은 이제 당진의 청년이 되어 당진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뿌듯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당진의 숨결을 정화합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녹색의 길, 우리 함께 끝까지 걸으며
새해 아침에 받은 365개의 선물!

날마다 행복하게 펼쳐며 그중 몇 개는 당진 환경을 위해 사용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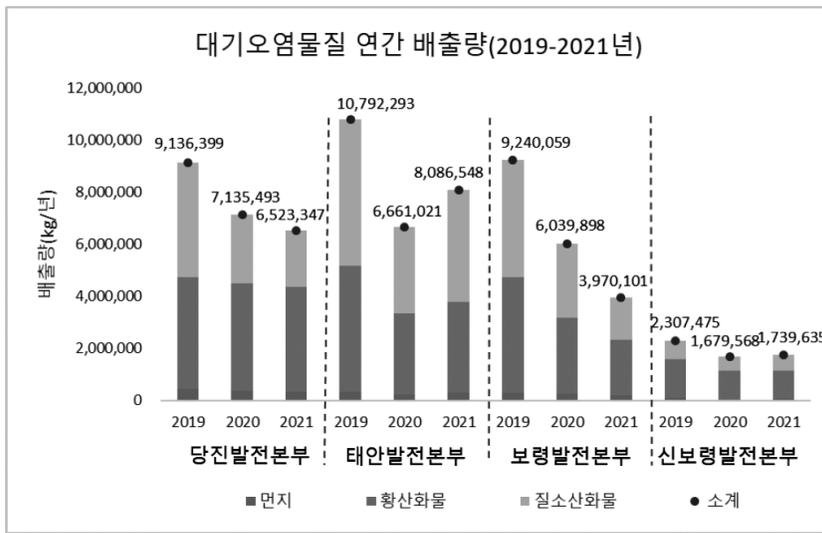
2023년 1월 1일

당진환경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당진화력 주변 주민 암 발생률 16% 높다”

충남연구원·단국대학교 5년 동안 충남 발전소 주변 건강조사
충남 전체 비해 남성 40.3%, 여성 23.4%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9 - 2021년 발전소별 굴뚝 연간배출량



출처: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연간배출량 통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밖에 골관절염, 심전도검사 이상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의뢰로 충남연구원과 단국대학교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2k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 14일 내포신도시 흥성가족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표됐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대표(마을이장)를 비롯

해 일부 관계인들이 참석하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공론화 되진 못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과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지난달 28일 당진시청과 충남도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대

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돼 있으며, 암 연령표준화발생비가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 충남 전체에 비해 남성은 40.3%, 여성은 2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지역인 서산·공주·부여에 비해 골관절염과 심전도검사 이상자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요충총비소(소변에 포함된 비소 농도) 또한 비교지역 및 전국민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위해가 높다고 발표됐다.

2차자료 분석 - 암 표준화 발생비

▶▶ 발전소 지역별 충남 대비 암 연령표준화 발생비

지역	발생부위	화력발전소 <2 km						
		Vs. 화력발전소 ≥2 km			Vs. 충남			
		발생자 수 N	기대 발생자 수 N	SIR	95%CI	기대 발생자 수 N	SIR	95%CI
남성								
당진	모든 암(C00-C96)	274	245	1.12	(0.99-1.25)	235	1.17	(1.03-1.31)
	갑상선제외 모든 암	264	223	1.18	(1.12-1.55)	228	1.16	(1.02-1.30)
태안	모든 암(C00-C96)	337	288	1.17	(1.05-1.30)	207	1.63	(1.46-1.81)
	갑상선제외 모든 암	322	250	1.29	(1.21-1.61)	196	1.64	(1.35-1.93)
	전립선 (C61)	47	29	1.62	(1.19-2.11)	18	2.67	(1.96-3.49)
보령	모든 암(C00-C96)	470	398	1.18	(1.08-1.29)	326	1.44	(1.31-1.57)
	갑상선제외 모든 암	447	377	1.19	(1.14-1.49)	318	1.41	(1.21-1.70)
	위 (C16)	119	98	1.22	(1.01-1.44)	67	1.77	(1.47-2.11)
	간 (C22)	74	45	1.63	(1.28-2.03)	31	2.39	(1.87-2.96)
서천	모든 암(C00-C96)	195	214	0.91	(0.79-1.04)	137	1.42	(1.23-1.62)
	갑상선제외 모든 암	187	207	0.90	(0.73-0.98)	128	1.46	(1.15-1.53)
여성								
당진	모든 암(C00-C96)	208	197	1.06	(0.92-1.21)	183	1.14	(0.99-1.30)
	갑상선제외 모든 암	158	147	1.07	(1.05-1.24)	156	1.01	(0.89-1.22)
태안	모든 암(C00-C96)	240	220	1.09	(0.96-1.23)	173	1.39	(1.22-1.57)
	갑상선암 제외 모든 암	187	146	1.28	(1.18-1.58)	112	1.67	(1.46-2.02)
	비호지킨 림프종 (C82-C86, C96)	12	5	2.32	(1.19-3.81)	3	4.09	(2.11-6.74)
보령	모든 암(C00-C96)	327	293	1.12	(1.00-1.24)	253	1.29	(1.16-1.44)
	갑상선제외 모든 암	246	231	1.05	(0.97-1.25)	197	1.25	(1.14-1.46)
	간 (C22)	25	15	1.65	(1.06-2.35)	10	2.52	(1.63-3.60)
	갑상선(C73)	81	62	1.31	(1.04-1.61)	56	1.44	(1.14-1.77)
서천	모든 암(C00-C96)	123	144	0.85	(0.71-1.01)	110	1.12	(0.93-1.32)
	갑상선제외 모든 암	99	127	0.78	(0.48-0.96)	95	1.04	(0.87-1.30)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석탄화력발전소 반경 2km 이내 주민들의 암발생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충남 대비 남성은 1.11배, 여성은 1.25배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은 암 발생 증가 추세를 보였다. 종류별로는 남성에게는 위암과 간암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비호지킨림프종과 간암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남성의 경우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 연령표준화발생비가 충남 전체 대비 16% 높았다. 당진화력 주변지역이 보령화력, 태안화력, 서천화력 주변지역에 비해 암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보령화력, 태안화력, 서천화력은 당진화력보다 더 오랫동안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해왔다”며 “과거에는 오염물질 규제 기준도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당

진보다 타 발전소 주변지역의 검사 결과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 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연관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공통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위해가 높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당진시대]

당진 석면학교 26곳..2026년까지 순차적 제거

당진교육지원청, 올 겨울 30억투입..12개교 석면 제거 추진

석면 학교 명단 					
순서	학교급	학교명	순서	학교급	학교명
1	초	고대초등학교(병설유 포함)	14	중	당진중대호지분교장
2	초	고산초등학교	15	중	면천중학교
3	초	기지초등학교	16	중	서야중학교
4	초	당진초등학교	17	중	석문중학교
5	초	북창초등학교	18	중	송산중학교
6	초	석문초등학교	19	중	신평중학교
7	초	성당초등학교	20	중	호서중학교
8	초	천의초등학교	21	고	당진고등학교
9	초	초락초등학교(병설유 포함)	22	고	당진정보고등학교
10	초	탑동초등학교	23	고	서야고등학교
11	초	한정초등학교	24	고	합덕제철고등학교
12	초	합도초등학교	25	고	호서고등학교
13	중	당진중학교	26	고	송악고등학교

당진 지역 초·중·고 54개교 가운데 여전히 26개교에서 석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축자재로 오랫동안 사용된 석면은 과거 학교 천장에 대부분 이용됐다. 그러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후두암, 난소암,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1980년대 북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됐고, 한국은 2009년부터 학교에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오래전에 건축된 학교 건물에는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다.

당진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한 당진 지역 석면

학교 수는 전체 54곳 중에 50곳으로 이 가운데 석면이 아직 남아 있는 학교는 올해 11월 기준 26곳이다. 초중고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6곳으로 2021년부터 올해 겨울방학까지 석면 제거가 이뤄진 학교는 제외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석면에 포함된 자제가 있고, 미세한 틈 사이에 석면이 있을 수 있어서 석면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공기 흐름에 따라 석면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며 “석면 피해는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교의 천장 석면 텍스 제거하는 모습

이어서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시설로,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빠르게 제거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석면의 피해는 어릴 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른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해 겨울 30억 투입..12곳 석면 제거 계획”

정부는 학교 내 석면건축자재를 2027년까지 모두 해체·제거할 목적으로 매년 2827억씩 총 2조 8270억원을 교부해 학교시설 석면 제거 추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역시 2014년 기준 도내 도내 유·초·중·고등 학교에서 200만㎡ 가량의 석면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석면을 올해까지 150만㎡ 제거 완료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머지 석면을 모두 제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도 2017년

부터 2022년 여름까지 매년 예산을 확보해 석면 제거를 진행했다.

석면 학교로 파악됐던 50개 가운데 24개는 석면을 제거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석면을 부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투입된 예산은 약 53억 6700만원이며, 석면 제거 면적으로 따지면 5만 3429㎡이며, 부분 제거는 2만 7977㎡ 규모다.

또한, 2022년 겨울방학 기간에 당진 지역 12개교를 대상으로 29억 5800만원을 투입해 완전 석면 제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조금의 석면 물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사를 꾸준히 실시하며, 그때마다 자체적으로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충청남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진교육지원청도 방침에 따라 사업을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올해 12개교를 대상으로 석면을 제거하는 것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며, 예산도 많이 확보한 상태”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고, 꾸준히 조사해 당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당진신문]

“석탄화력 조기 폐쇄” 당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대상 장기적 추적조사 필요”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을 포함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비가 다른 지역 대비 높게 나온 것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략)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기후위기 최대 주범”이라며 “동시에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비 수명 30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탈석탄에 나서야 한다”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장기적인 추적관찰 등 지속적인 사후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개선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도 꼬집었다.

오는 2024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kwh당 0.6원으로 현재보다 2배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당진시는 지금까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예산을 운영해왔다. (중략)

이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석탄화력발전소 피해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고 있다”며 “당진시 또한 당초 세수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사후건강관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당진시대 일부 발췌]

“기후위기 시대, 담대한 전환 필요하다”

조천호 박사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공감 토크콘서트 열려



조천호 박사가 4명의 게스트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홀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조천호 박사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공감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당진시의회가 주최하고, 당진시에너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콘서트는(중략) 조천호 박사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 공감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조천호 박사(전 국립기상과학원장)는 강의를 통해 △지구 위험 한계 △전 지구 평균 지상 기온의 변화 △GOP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2030년 전세계 부분별 탄소저감 수단 △기후변화의 적응격차에 따른 미래세계 등 기후위기 시대를 알리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담대한 전환과 도시를 재구성하는 도넛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공감 토크콘서트는 당진시에너지센터 박미상 사무국장의 진행하고, △서영훈 시의원 △당진시 경제환경국 정본환 국장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조순현 국장 △고대중

학교 최준규 학생이 게스트로 참여해 생각을 나누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함을 공감했다.

조천호 박사는 “100년 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이상 상승하는 등 지구의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에 문명의 붕괴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미래 기후가 결정되기에 사회는 담대한 전환을 통해 지구 한계의 안전한 운용 공간 내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당진시에너지센터장은 “그동안 기후 위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공감했으면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천호 박사님의 메시지가 당진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당진신문]

충남도민 500여명 '김태흠 도정 비판' 집회

위기충남공동행동 14일 도청 앞서 열려, 일부 농민들 트랙터 몰고 오기도



기후위기충남공동행동 황성렬 공동대표가 위기충남 공동행동 도민대회에서 정의로운전환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노동자와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도민 500여 명이 14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태흠 지사 도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는 눈발이 날리는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진행됐다. 일부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도청 앞에 트랙터를 몰고 왔다.

집회에 나선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도민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쌀값 폭락과 충남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해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충남농민들의 생존이 위기다. 쌀값 폭락과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김태흠 지사는 자신의 임기 내에 17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스마트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팜으로 매년 300명의 청년농민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망

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9만 충남 여성농민들의 자존감을 채우던 여성농민 행복바우처조차 폐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은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다"라며 "김태흠 도정은 충남

도민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권조례가 폐지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충청남도 인권증진팀을 해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략)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11월 30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도에 4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내용은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지켜내고 인권정책 확대 할 것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 ▲노동정책 후퇴 중단이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보름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충남도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펴며 충남도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략)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4500억 들여 수소 부두 조성

송산일반산업단지 앞 공유수면 매립해 부두 건설
충남도·당진시, 9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송산에 대규모 수소(암모니아) 저장 시설을 갖춘 부두가 2030년까지 조성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지난 2일 △HDC현대산업개발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삼성물산(건설부문) △신한은행 △선광 △어프로티움 △롯데그룹화학군(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 등 9개 기업과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9개 기업은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일원 송산일반산업단지 앞 공유수면 18만7000㎡를 매립해 부두를 건설한다. 이 공유수면은 항만기본계획 상 잡화부두로 계획된 곳으로, 취급 화물 변경만으로 신속하게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

부두 건설 이후에는 4만 톤 규모의 암모니아 저장탱크 4기를 설치하고, 5만 톤과 3만 톤급 액체화물 운반선 접안시설 2선석을 구축한다. 수소는 영하 253℃에서 액화되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까다로운 만큼, 수소와 질소로 이뤄진 암모니아로 수입하게 된다. 암모니아는 영하 33℃에서 액화되며, 수소보다 부피가 작은데도 에너지 밀도는 1.7배 높아 경제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위해 9개 기업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부두 및 저장시설이 완공되면, 해외에서 연간 2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수입, 석탄화력발전 혼소(석탄+암모니아)용과 연료전지 발전용, 차량용 등으로 공급한다. 당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소는 2030년 기준 연간 200만 톤 안팎으로 추정된다.

충남도는 이번 부두 조성이 충남을 비롯한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혼소 발전을 통한 연간 3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 사업과 수소 관련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략)

[출처 : 당진시대 일부 발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한다

“화력발전소 폐쇄 및 현대제철 수소환원제철 방안 담겨야”
당진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예정”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의무 계획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당진시는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연구원이 맡아 진행하며 예산은 8400만 원이 투입된다.

지난 19일에 열린 착수보고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전망 △저탄소 발전전략 재정비 방안 △탄소중립 자문기구 마련 방안 △시민 대상 홍보·교육 방안 및 그 외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도 다뤄져야 하며, 현대제철이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인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지역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대제철과 당진발전본부 두 기업에서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향후 당진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설정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 당진시새

“화학사고 발생 대비 구체적 시나리오 만들어야”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최종보고회 개최

당진시가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및 유관 기관의 협조를 규정한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당진시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제3회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에 따른 과업 내용을 설명한 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용역사는 △당진시화학물질 현황조사 △화학사고 예방 역량강화 △화학물질 사고대응 및 복구 지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안 등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사고 대응체계 및 절차 △지역화학사고 대비·대응·복구 계획이 담긴 당진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안했다.

용역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수산화나트륨, 철, 인산화티타늄 등 총 421종이며, (주)고려소재 신평공장, (주)SIMPAC 당진공장 등 총 199개소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하는 사고대비물질 25종에 대한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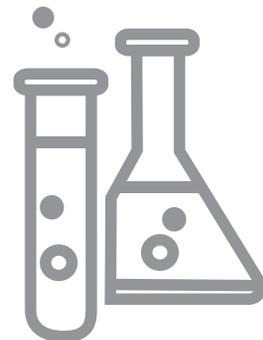
록을 작성하고, 화학사고 발생 저감을 위한 사고 예방 대책으로 △비상대응협의체계 구축 △사업장 차등 관리계획 수립 △효율적인 교육훈련 방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략)

용역사의 보고를 들은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비상 대응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후 오염물질 처리와 2차 사고 발생 가능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윤준현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중략) “주변 지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당진시만의 비상 대응계획이 들어가야 하고, 사업장이나 화학물질 별로 대피 계획이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황성범 환경팀장은 (중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역할 분담이나 폐기물 사업자 체크리스트가 등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당진신문 일부 발췌]



환경운동연합, 제1차 자원순환 포럼 통영서 개최



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리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이 개최됐다.

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리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이 개최됐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현재 폐기물 관련 이슈와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폐기물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정책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포럼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생활환경정치로써 제로 웨이스트 운동 방향' 기초 강연으로 막이 열렸다. 홍 소장은 활동가 및 환경단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들과의 결속력 강화하여 생활환경정치 속에서의 제로웨이

스트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제1세션의 대주제는 '순환경제 정책 및 이슈 현황과 환경운동연합 운동과제 모색'이었다. 첫 번째 발제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출몰 운드라흐바야르 인턴 활동가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중략) 이어 환경부 안상혁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이 '순환경제시대 탈 플라스틱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중략) 마지막으로 김기용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자원순환'을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중략)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사회

이어 제2세션은 ‘기업 ESG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팀장은 장례 산업에서의 환경 문제로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꼽았다. 그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2300만 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회용품을 무상 제공가능하다’고 역이용하여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는 연간 33조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친환경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연간 170만 벌이 버려지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옥수수와 한지 등을 통해 제작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기업과 ESG’ 발제를 통해 ESG는 기업들이 환경 캠페인에 기부하고,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중략) 직접 경영 활동 과정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ESG 경영 가이드라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2020년부터 추진했던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자연 활동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을 통해 총 1만45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2021년 플라스틱방앗간 참새클럽 시즌3를 통해 한 해에만 73만3330개의 병뚜껑을 수거 및 재활용하였다고 밝혔다. (중략)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옥철 이사장은 해양 폐기물 관련 활동을 공유하였다. 그는 2014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구를 소비 및 사용하는 주체인 어민들에게도 해양 환경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중략)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순환문화 활성화 운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중략)

2019년 ‘성남시 자원순환가게re100’ 사업을 시작했으며 (중략) 성남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개정했고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9만 4058kg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106.6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략)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하며,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더욱 조직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일부 발췌]

핵발전소 폐쇄 100만 서명 추진

87개 단체 연대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
5대 요구안 발표, 핵발전소 폐쇄 온·오프라인 서명 시작



12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87개 단체가 연대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됐다.

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이 추진된다.

12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87개 단체가 연대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이하 서명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서명운동본부는 '원자력 최강국'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핵폐기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족식에서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 등 5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정당, 종교계 등 87개 단체가 연대해 발족한 서명운동본부는 이날 발족식에 70여명이 참여해 17명의 릴레이 발언을 통해 핵발전소 폐쇄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여는 발언에서 녹색연합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는 현재 가장 위험하고 무도

한 정권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올해 3월 11일까지 10만명,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광범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모아진 서명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국민들의 탈핵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페이지 주소는 <https://bit.ly/nonukekorea> 이며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작성 : 사무국]

탄녹위 “재생에너지 확대 검토해야”...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반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정부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

탄녹위는 전력공급뿐 아니라 수요 관리 목표를 강화할 구체적인 목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이 20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원실을 통해 확인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관련 탄녹위 검토의견’을 보면 탄녹위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마련한 제10차 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발전 비중 확대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향후 전기차 사용, 난방의 전력화 등 전기화 수요가 증가하며 제10차 전기본에서 예상한 전력 수요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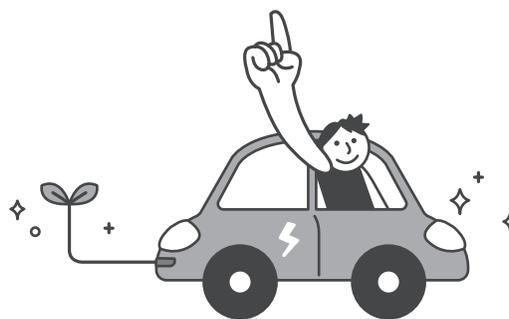
앞서 산업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해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는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는 줄어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탄녹위는 전력 발전량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전력 수요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효율 기기, 에너지관리 시스템, 효율 관리 등 수단 별로 구체적인 목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방안도 구체성이 부족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2030년 NDC와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탄녹위는 “제10차 전기본에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 구성 등의 내용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명확하게 표기”하라고 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내년 3월에 탄녹위가 ‘2050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전 확대에 매달린 나머지 재생에너지 확충을 외면하면 탄소중립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리라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한전이 '30조원 적자' 내는 진짜 이유

영국 국제경제 자문기관
“재생에너지 늘려야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에 강해져”

국제경제 자문기관인 영국의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 전력의 재무 위기를 재생에너지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기관은 15일 발표한 '화석연료 가격 변동과 한국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설치된 재생에너지 용량에서 경쟁국들에 훨씬 뒤처져 있고 신규 용량 건설 계획도 보수적이어서 화석연료 가격 변동으로 받는 충격이 더 크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면 이런 변동성에 대한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운송, 산업, 난방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것이 한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부담을 덜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전력은 급등한 발전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올해말까지 30조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은 이런 영업 손실에 따른 자금난을 주로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넘겨 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결산이 반영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회사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한국전력 공사법(한전법)에 따라 이런 자금 조달 길도 막히게 된다. (중략)

보고서는 “(중략)전력 소매가격에는 요금 규제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한전의 막대한 재정 손실은 결국 국가가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국제 화석연료 가격 변동에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구조적 원인으로 전력 시장 구조를 꼽았다.

연료비나 온실가스 배출과 상관없이 발전사들에게 고정된 원가를 보장하면서 전력 소매를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가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는 한국에서 화석연료 수입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선진국들보다 느린 주요 이유를 (중략) “과중한 인허가 절차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애주기 비용의 약 23%를 차지한다”며 “이것이 한국의 높은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비용이 상당한 규제 부담과 복잡한 절차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생략)

[출처:한겨레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12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40,503,116	인건비	급여	4,540,000
회 비	개인회비	5,680,000		퇴직적립금	365,82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466,310
	계	5,750,000		계	5,372,13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280,690	경상비	복리후생비	-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90,390
	계	280,69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지급수수료	481,500
	계			기타운영비	15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계	723,790
	계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180,000
보조금	기타사업			생태보전사업	30,000
	계			생화환경사업	-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조직 회원사업	1,610,220
	계			모금사업	-
기타수입	기타수입	14,230		연대사업	564,600
	계	14,230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계	2,384,820
	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차입금	차입금				계
	계		이월액	이월액	38,067,296
		계		38,067,296	
월수입 총계		6,044,920	월지출 총계		8,480,740
수입 합계		46,548,036	지출 합계		46,548,036



위기충남 공동행동 기자회견

12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위기충남 공동행동이 '인권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의회가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및 자문단,고문단 송년회

12월 6일 무수동식당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자문단, 고문단 분들과 함께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기획단 회의

12월 6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기충남 공동행동 당진선전전

12월 8일 위기충남 공동행동과 당진
환경운동연합이 당진구터미널에서
선전전을 열었습니다.



2023년 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

12월 26일 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석탄화력건강영향조사 발표 충남 기자회견

12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당진
기자회견에 이어 기후위기 충남행동
이 충남의 석탄화력건강영향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1 일반사업

- ❖ 1/03 석탄화력 주변 건강영향조사 관련 기자회견 - 서천군청
1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1/06 석탄화력 건강영향조사 관련 충남방송 인터뷰 - 당진화력 주변
환경운동연합 충남 활동가 간담회 - 내포
- ❖ 1/07 환경운동연합 임시 전국대표자회의 - 서울역 회의실
- ❖ 1/11 위기충남공동행동 20만 서명 선포 기자회견 - 충남도청
정의로운전환 관련 녹색전환연구소 간담회 - 내포혁신플랫폼
탈석탄법 입법 공청회 - 온라인
- ❖ 1/12 당진지속가능발전계획 3차 워킹그룹회의 - 당진시청
석탄화력 주변 건강영향조사 관련 기자회견 - 보령시청
- ❖ 1/17 위기충남공동행동 전체 대표자회의 - 충남노동권익센터
- ❖ 1/18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총회준비위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당진환경운동연합 총회준비위 2차 회의 - 사무실
- ❖ 1/19 당진지속협 총회 - 메가패밀리뷔페
- ❖ 1/26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대전NGO센터
- ❖ 1/27 환경운동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4차 공론장 - 온라인
- ❖ 1/31 2023년 1차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당진환경운동연합 총회준비위 3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31(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병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민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원용
 김윤가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근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현기
 김현림 김현용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정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근성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중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걸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유경라
 유경자 유영석 유준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찬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혜선 이해운 이현숙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본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환 정중섭 정찬관 정치웅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재석 차준국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민국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사)당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2022년 한해 회원님의 열정과 관심으로 무사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 도약을 위해 회원님을 모시고 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꼭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2월 20일(월)저녁 6시 30분
- 장 소 : 장소는 추후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 우편으로 사업결산 총평과 사업계획(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당진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덕분에
2022년에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2023년 1월 15부터 확인 가능)
2. 메일, 팩스나 우편으로 받고 싶으신 회원님은 041-355-7661로 전화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301-3325-91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